

## “재정확장정책 불안... 빚더미 앓을수도”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채무 증가 우려 한목소리  
확장정책 적정선 확보 및 체계적 채무 관리 주문  
제주도 “공공에서 투입해 돈 돌아야 경제 활성화”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도의회 확장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향후 채무증가로 인한 재정건정성 약화는 물론 민선8기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 나오면서 확장정책의 적정선 확보 및 체계적인 채무 관리가 주문됐다.

이에 제주도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해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다.

3일 속개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편성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

사하면서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확장재정정책) 국가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정책인가 하는데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확장정책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타당하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채나 예수금을 끌어다 쓰는데 결국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건전재정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지 빚 갚을 능력이 안되 면서 돈을 끌어다 쓰면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재정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될때까지 해야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제주도의 채무를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가 상환해야 할 원금은 지방채 등 관리채무, 직영기업채무, 예수금 등을 포함해 1조9960억원으로, 향후 증가 또는 신규 발행이 예상되는 지방채와 시설공단체를 포함할 경우 약 3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3년 정도 후면 3조 가까운 빚더미에 앓게 된다. 민선 8기에는 채무가 엄청나다”면서 “어쨌든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도민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지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전 행정부지사는 “공단체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빚 걱정

에 도민들이 염려 없게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도정이 재정위기 불안감을 도민사회에 조장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홍명환 의원은 “살림이 어려워 3000억 정도 줄어든다 하는데 도민 보기에 3000억 정도 세입 줄어드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행정부지사는 “세입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다”면서 “가용재원 줄어든다는 건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의무적 경비가 많아지면 나머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모자라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방세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은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본격 추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구축

제주도, 내년 2월까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응급실 기반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보고체계를 구축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 현황 및 주요 특성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국에 총 404명(사망자 1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한 환자수가 177명(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전년도 발생환자 수 11명보다 감소한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변동성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갑작스런 기습 추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며 “도내 참여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감시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잇따른 태풍으로 감귤 종결점과 갑절 ↑

전년 6.4%에서 14%로 꺾음  
당도는 작년 수준으로 회복

제주감귤의 품질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올해 몰아친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해 ‘종결점과’가 14%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0~26일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당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당도 10.2브릭스, 산함량 0.95%로 전년도 수준으로 품질이 회복됐다고 3일 밝혔다.

노지감귤 품질 회복으로 가격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처가 나거나 병해충에 걸린 ‘종결점과’가 전체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유독 많은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결점과 비율은 6.4%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노지감귤 수확 완료 시까지 관내 5개 농협과 협력해 감귤 유통센터 출하 품질 확인, 수확현장 컨설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햇빛을 잘 받아 착색이 좋은 감귤은 2~3회 나눠서 수확하고, 당도가 낮거나 산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완숙 후 수확을 해야 한다”며 “수확 전 부패방지 살포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저장용감귤은 예조를 거쳐 출하계획과 시장정보에 따라 선별 출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사회상 담은 1960년대 사진 발굴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웅정시에서 1960년대 제주 생활상과 원도심 경관 등을 담은 사진 수십 점이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제주 사진들은 웅정시에서 조선족의 이주사와 생활상, 항일투쟁의 역사 등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다량 사진작가 차광범(52)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백두산·압록강 일대 답사에 나선 한라일보 취재팀에 처음 공개됐다.

사진들은 웅연계곡 하류의 모습과 초가, 물허벅을 진 여인, 돌하르방 등 다양한 피사체를 담고 있다.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원도심과 제주향교 모습, 삼성혈 주변 등 역사 문화유산들이 흑백필름에 담겼다. 초가와 커커이 쌓인 돌담에선 제주정



지난 8월 백두산·압록강 일대 답사에 나선 한라일보 취재팀이 발굴한 1960~70년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관덕정 앞으로 공개 받은 신작로를 따라 도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취재팀은 이 외에도 웅연계곡 하류의 모습과 초가·빨래터 등 다양한 사진을 함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를 느낄 수 있다. 사진들은 주로 1960~70년대 초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본

격화되기 전의 모습들이다. 이들 사진들은 급속한 개발 바람에 사라지고 잊혀져간 제주사회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2019 제주국제건축포럼 6일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

제주도는 오는 6일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Review-City & Tourism’을 주제로 2019 제주국제건축포럼 Review 행사를 개최한다.

세션 1에서는 일본 류큐대학 시미즈 하지메 교수의 ‘오кина와의 관광과 경관에 대한 담론’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수 대표의 ‘도시

건축의 시간성, 정체성 및 투어리즘’, 장영석 (재)아름지기 사무국장의 ‘제주의 경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이용규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인 제주도 건축사회 회장, 신춘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건축가, 양창원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등이 ‘제주국제건축포럼 Forward’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송은범기자

서귀포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귀포시의 새로운 10년,  
희망과 행복의 2020년대를 향하여  
서귀포시가  
더 뛰고  
더 높이 날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